

 <b>교육부</b>				<h1>설명자료</h1> <p>2020. 2. 24.(월) 배포</p>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		
담당과	교육국제화담당관	담당자	과장 사무관	안주란 (☎ 044-203-6771) 이정규 (☎ 044-203-6766)	

**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**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서울경제(김희원 기자) / '20.2.23.(일)
- 제목 : 정부 코로나19 대학 지원 '탁상행정' ...대학 불멘소리

**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**

-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중 무증상 입국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자가 또는 기숙사에서 거주를 합니다.
  - 다만, 보건당국에 의해 음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으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,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임시거주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**<지자체 임시거주공간 확보 사례>**

- (서울) 인재개발원 등 5곳에 중국 유학생 주거 공간 353실, 서울시 교육청 수련원 등 149실 제공 예정
- (경기) 도내 5개 시군에서 중국 입국 유학생 거주 시설 7개소 마련
- (광주) 대학 요청 및 상황발생시 2개소(700명 수용) 제공 예정
- (제주) 호텔을 임대(194실 규모)하여 임시 생활시설로 제공 예정

- 아울러, 모든 중국 입국 유학생들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대학의 1일 1회 이상 유선·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, 자가진단 앱 정보를 대학과 공유하여 이중으로 촘촘하게 관리합니다.

- 휴학 권고에 응할 규모가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대학 조사결과에 따르면, 미입국 중국 유학생은 3만 8천여명으로 확인하였으며, 이 중 입국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인원은 1만 9천여명입니다.
  -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학점 이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제공하고 비자발급이 지연 등으로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휴학을 권고함으로써 유학생의 입국 시기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모든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14일간의 등교중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  - 특히, 대학 내 도서관, 식당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학생카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대학의 사정에 따라 관리 방침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대학에서 기숙사뿐만 아니라 자가에서 거주하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등교중지 대상 학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예비비 지원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.
- 이번 코로나19는 정부, 대학,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.
  - 정부는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며, 대학, 지자체 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